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6호 소개

2013년 6월에 창간하여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이번 달로 제26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헌법판례동향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로 소개된 '여성 등에 대하여 종신형 선고를 금지하는 형법규정과 평등권' 사건은 여성 그리고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러시아 형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남성이자 성인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규정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제출된 여러 자료를 통해 성별에 기초하여 여성 범죄자를 종신형에서 제외시킬만한 공익이 있으며, 형법에 대하여 체약국이 가지는 폭넓은 재량 등을 고려했을 때,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별에 근거하여 다른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2010헌마460 사건(남성에 한정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사건), 2009헌마514 사건(여성에 한정하여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한 사건)과 비교하여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G-20에 대한 항의캠프 설치 가처분' 사건은 최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었던 선진국과 신흥국 20개국 정상회담(G-20)에 항의하는 캠프 설치가 문제된 사건이며, '동물보호와 산란계 철장사육 금지' 사건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산란계의 철장사육에 관한 사건입니다. 산란계의 철장사육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판단하면서 동물사육의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철장사육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규율 제정자는 동물사육의 이익과 동물보호의 요청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99년과 2010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산란계에 대한 철장사육은 금지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판례로 소개된 '법률에 의한, 히틀러 생가의 공용수용' 사건은 건물주와의 이견으로 히틀러 생가를 구매하지 못했던 오스트리아 정부가 법률을 통해 이 건물을 수용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특정 부동산의 수용에 법률의 형식을 사용하여도 법치국가원리나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히틀러 생가가 갖는 상징적 힘을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용으로써 의도하는 목적을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이룰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비방·모욕하는 표현의 상표등록금지와 표현의 자유' 사건은 특정인, 집단, 신념, 국가상징 등을 비방·모욕하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한 특정 상표에 대한 등록 금지는 내용에 기반한 차별로써 청중들에게 모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상표권 제도의 일반적 체계 및 대표적인 등록 거부 사례는 이번 호에 같이 실려 있는 미국 국외통신원 소식을 참고하여 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프랑스의 '금융시장기관 조사관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사생활 존중권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건은 금융시장기관 조사관이 임무 수행을 위해 가지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정보 수집기간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출산휴가로 근로조건에 있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은 청구인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단체협약상 자신이 행사할 수 있었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우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직업에 관한 권리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과소평가되거나 피해를 받게 된다면 이는 성별에 의한 직접적인 차별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 관계에 있어 임신과 출산에 의한 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12호에 소개되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한 피고용인 해고에 대한 차별심사기준' 사건,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10호에 실렸던 일본 최고재판소의 '임신을 이유로 한 직위강등, 소위 마타하라 판결'과 같이 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지난 호는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http://ri.ccourt.go.kr/cckri/cri/main.do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형법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은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형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된 경우 개정된 형법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성범죄자에 대한 형법규정 소급적용의 위헌 여부' 사건(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1호),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년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한 판결의 소급효' 사건(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17호)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일본의 '영장 없는 GPS 수사의 위헌성'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GPS 단말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GPS 수사가 공공도로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장소

와 공간에서도 그 대상자의 소재 및 이동상황을 계속해서 망라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동유럽의 라트비아 헌법재판소와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1990년대에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는데, 그 시절은 소련에서 독립한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하여 유럽평의회, 특히 베니스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럽의 보편적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고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이 시기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급속히 활성화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7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링크를 연결하시면 해당 기사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미국통신원 소식으로 '미국 비방·모욕 상표 부등록 조항과 표현의 자유 - Matal v. Tam 사안을 중심으로'와 멕시코통신원 소식으로 '멕시코의 미성년자 미결구금의 헌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을 실었습니다.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더욱 풍부하고 신속한 내용으로 찾

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김성진